

반딧불이

반딧불이는
사방이 칠흑에 잠겨서
어둠이 밤 한복판에 따리를 틀 때
찬 바람이
공원의 나무며 여린 풀들을
칼날 상처로 훑고 가는 것을 본다.

반딧불이는
세상이 아직 우기에 젖어
녹진한 안개가 돌담 이끼로 자랄 때
다습한 공기가
아이들의 그네며 미끄럼틀을
핏빛 녹으로 덮어가는 것을 또 본다.

반딧불이는
바람 눈개 짙어 별조차 없는 이런 밤에
홀로 콩깃불을 켜 든다.

외론 불은 또 다른 불을 불러 빛이 되고
그 빛 어둠을 흠어 신새벽 여명(黎明)을 밝힌다.
반딧불 외등 아래서
순한 세상 마을 사람들은
덧난 녹을 닦고 젖은 땅을 말려
청렴(淸廉)한 세상을 울곧게 키운다.

세상이 환하다.